

2019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임사회)		위 원 장	학 교 장
회 의 록			
○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18:00			
○ 장소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회의실(학교본부 2층)			
○ 출석위원(9명)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불참위원(2명) : 000, 000			
○ 참석교직원(8명)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회 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보고사항 5. 위원장 개의선언 6. 안건심의 7.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추진 2. 전북기계공고 공모교장 관련 안건			
간사 (000)	안녕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총무부장 000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학년도 제3회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11명 중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신 두 분을 제외한 아홉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원 충족 요건인 여섯 분 이상이 참석하였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000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 (000)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는 교복 관련도 있지만 후임 교장 공모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장 공모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교장선생님을 초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께서 학교 여러 가지 사항에 자문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000)	다음은 000 위원장님의 개회사 및 개의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000)	개의선언을 하겠습니다. 11명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간사님께서서는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000)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는 총 2개의 의안이 있었습니다. 모두 심의 의결된 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000)	본 회의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건으로 바로 제1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제안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의안 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추진(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부장 000입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 (000)	○ 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실시여부 심의 ○ 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가격 입금 방법 - 신입생 배정 직후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교복 대금 고지서 발부(국.공립학교 의무사항) - 학교 회계 절차에 따른 세입-세출 등 처리 - 학교 주관 구매를 신청한 학생에게 교복 대금고지서를 발부하고 학교 행정실이 수납 (스쿨뱅킹 활용 권장) ○ 학생교복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 심의 - 위원 10명(교직원:3명, 학부모:4명, 학생:3명) ○ 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 색상 및 디자인(2019학년도 1학년과 동일)
위원장 (000)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시오.
위원 (000)	공동구매를 이렇게 일찍 하나요?
제안자 (000)	디자인 결정한 부분을 운영위에 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고, 교복 선정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드리려고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때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000)	교복 디자인은 작년과 똑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제안자 (OOO)	예, 작년과 같습니다.
위원 (OOO)	교복선정위원회가 지금 없나요?
제안자 (OOO)	작년에 구성했던 선정위원회는 있고요, 올해는 2020학년도 교복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OOO)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입생 학부모로서의 교복 선택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입생들이 입을 옷인데 신입생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안자 (OOO)	우리학교는 교복을 동복부터 입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OOO)	동복부터 입도록 하는 규정이 있나요?
제안자 (OOO)	학교생활규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OOO)	신입생 학부모들이 아이가 입을 교복에 대해서 아이 학부모로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복을 1학기 때부터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규정을 확인해보지 않고 이 안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면 이 안건을 다음 회의로 연기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교복소위원회 관련해서 학교의 처리과정에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기했던 부분은 교복을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교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민주적 절차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가 하는 것들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학교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 과정이 토론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것이 교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론으로 배우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시행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도 났는데 현장실습 문제가 많다고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번 아이들 실습한다고 돌아보니까 안전복장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OOO)	그리고 지금 교문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 문제 있으니 상의 하셔서, 저는 이런 과정이 교육적으로 아이들과 구성원들 간에 얼마만큼 소통하고 토론해서 결정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학부모들이 어떤 고민 속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 제가 듣기로 교복문제 관련해서 학부모 회장이 1년 동안 교복을 바꾸자고 늘 노력해왔고, 올 봄에도 일찍부터 교복 바꾸는 문제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니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도록 교복소위에 미리 얘기해서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하여) 운영하지 않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더 모으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안건을 다음 회의로 연기해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자 (OOO)	참고로, 2018년 4월에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추진 주요사항 알림 공문이 왔었고 작년 9월쯤에 4월에 왔던 공문을 토대로 해서 2020학년도 신입생 공동구매를 추진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 (OOO)	지난 4월초 운영위할 때 교복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교복소위를 열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자고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 (OOO)	교복에 대해서는 교복 디자인은 차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공동구매는 부분 통과를 하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이 안건에 올려야 하지만 교복 디자인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을 내놓는 것은 절차나 순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안자 (OOO)	그것은 2020학년도 교복선정위원회를 선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OOO)	오늘 이 안건을 결정하지 않으면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까?
제안자 (OOO)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OOO)	그러니까 저는 신입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부터 입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안건을 진행시키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교장 (OOO)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는 신입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입학하고 나서 (신입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교복을 입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위원 (OOO)	예.
교장 (OOO)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교복 규정에 나와 있지 않나요?
제안자 (OOO)	교복 규정보다 학교생활규정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장 (OOO)	그동안에는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교복을 입고 생활을 해왔는데, 그 말씀은 (신입생들이 입학 후) 교복을 입지 않고 (교복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신입생들이 교복 입지 않고 생활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OOO)	일반 고등학교들도 1학기 지나서 교복을 결정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OOO)	OOO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구매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 운영위원회 때 교복 디자인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자고 이야기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내용도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교복 디자인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수렴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2020학년도 신입생들은 자기가 입을 교복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재학생들은 자신이 입을 교복이 아닌데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교복 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OOO)	그래서 저는 1학기 때부터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교복소위원회를 통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특별히 없다면 신입생들이 입학한 후 신입생과 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아이들의 옷을 사줄 때도 아이들의 결정권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교복을) 입을 아이들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OOO)	행정실장님, 예산 상 신입생이 입학한 후에 교복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행정실장 (OOO)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OOO)	그러면 공동구매 자체는 하되, 신입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학기 때부터 교복을 입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OOO)	그것 자체를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복을 입는 주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그 규정을 바꾸든지, 올해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하든지 해서 아이들 스스로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가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OOO)	저도 O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반 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성장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급작스럽게 성장하기 때문에 동복부터 입히는 게 아니라 1학기 정도 지나고 나서 하복부터 입히는 것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재 상황인 거ですよ. 그런 부분을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OOO)	이 문제가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방식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교복소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교복 디자인을 바꿀 것이냐, 바꾼다고 한다면 내년 2020학년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입학한 후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올해 결정된 대로 현행 교복대로 추진하고 다음에 재논의를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OOO)	<p>보통 학교들은 교복 디자인을 바꿀 때 재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교복 디자인 변경여부를 결정한 후에 교복소위원회를 열어서 교복 디자인에 대한 논의 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학교는 재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니 '우리가 입을 것도 아닌데.'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학생들이 (가정통신문을) 부모님한테 갖다드린 후 의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작성해서 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복 공청회도 하고 디자인도 변경하고 하는 이 작업들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p>
위원장 (OOO)	<p>안전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안전은 공동구매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 진행된 방법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 보니 운영상 문제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집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후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하면 신입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든지, 현재는 규정이 있습니까?(없음) 지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p>
학교장 (OOO)	<p>지금까지는 신입생의 의견을 반영하진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은 신입생 의견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입학할 때부터 교복을 입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하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들께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p>
위원 (OOO)	<p>그래서 지난 4월 운영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필요한 거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자고 결정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규정 검토 등 검토할 사항이 많은데 설문지 하나로 정리하면 적어도 그것을 문제제기 하고 그 속에서 충분한 논의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분의 의견들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O, X표 하라고 하면 어떤 의견 개진이나 토론장, 공론화의 장이 한 번도 없이,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디에다가 알려거나 하면 기분이 좋지 않으시잖아요.</p>

위원 (OOO)	<p>그래서 미리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들이 학교 구성원 내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교복문제가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 듣고는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학교가 합리적으로 운영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p>
위원장 (OOO)	<p>일단 이 안전에 대해서는 공동구매에 관한 부분은 의결을 하고 오늘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p>
위원 (OOO)	<p>그럼 다음 회의 때에는 교복을 입는 시기를 논의하자는 것이지요?</p>
위원장 (OOO)	<p>규정을 먼저 확인한 후에 논의하자는 것입니다.</p>
학교장 (OOO)	<p>그런데 신입생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신입생이 입학하는 시점에 재학 중인 2, 3학년들은 기존 교복을 입을 텐데 그럼 교복이 이원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p>
위원 (OOO)	<p>그것 자체도 공론화해야 된다는 것이죠.</p>
학교장 (OOO)	<p>한 사람 의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론화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위원 (OOO)	<p>저는 교복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한 번 바꾼다고 하면 전 학년이 다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 신입생부터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OOO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가 필요하죠. 결국에는 바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간에 타당성에 대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은 사실 이미 입학을 할 때는 공동체에서 같은 복장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으로 신입생에게 선택권을 주기에는 굉장히 버겁다는 부분이 되고 3학년에게 물어보면 내일 모레 졸업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이미 주어진 교복을 입어보고 2학년에 올라간 학생들이 선택권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신입생의 교복은 빨간색이고 재학생들은 검정색이라면 이것 또한 저는.....</p>

위원 (OOO) 저는 여기에서 졸업을 했던 입장인데, 운동복 색깔이 바뀌니까 1~3학년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많더라고요. 단체생활이라는 이런 생활에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교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대로 모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없지만 앞으로는 학생들, 부모입장, 즉 트렌드가 수시로 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꿔 볼 필요도 있으니 규정을 만들어가면서 공론화해서 의견을 정말 많이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공동구매 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고 교복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다시 (별도의) 건으로 해서 (논의) 하는 게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OOO)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구매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하고 다음 회의 때 교복 소위원회 규정과 생활복에 대한 규정을 다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OOO) 다음 회의 때 결정을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부족하지는 않는 거죠? 교복이 결정되지 않으면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사복을 입는 것도 아닌, 우왕좌왕하게 될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시간상으로 다음 회의 때 결정하고도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제안자 (OOO) 공문을 보면 신입생이 동복부터 입게 되면 사업자 선정을 8월 안으로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더라도 교복을 입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OOO)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사항이 있습니까?(없음) 추가 질의나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가부를 손을 들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교복 공동구매 건에 대해서 본 안건대로 결정하고 다음 회의 때 교복 관련 규정을 재검토 후에 디자인 변경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제1의안인 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추진(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기록자 총무부 OOO